



주 제:	“죄없는 자가...”	“사순 제 5 주일”	2010년 3월 21일
복음 묵상:	[요한 8,1-11]	[이사 43,16-21]	[필립 3,8-14]

예수님께서서는 중심에 서 있던 여인의 죄보다 여인과 예수님을 압박했던 유대인들의 죄를 물으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라는 말씀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죄를 먼저 생각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따지기 전에 남의 죄를 따지는 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용서라는 화두를 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남의 죄를 단죄하기 이전에 자신의 죄를 먼저 살피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라고 강하게 호소하셨습니다. 그 용서는 복음에서 그려진 예수님의 말씀에서 명확해집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이때의 반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결정적 동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죄의 용서는 신앙생활의 바탕입니다. 죄를 지었어도 용서를 청하면 풀리는 신앙의 신비를 우리는 매년 생활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는 죄를 고해하고 용서를 받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특히 사순시기 때에 판공이라는 훌륭한 관습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나를 탓하고, 남을 책망하기보다는 나의 들보를 찾아내어 용서를 청하는 시기, 예수님의 수난에 동참하는 사순이 마무리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남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시기에, 여인의 죄도 용서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태도가 나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벌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당신께 찾아와서 죄를 고해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의 용기가 부족한 것뿐입니다.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에 우리는 우리 죄의 뿌리를 반성하여 주님께 고해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야 합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매몰차게 간음한 여인을 몰아세웠던 것은 결코 예수님께서서 바리새 바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이웃의 잘못에 너그러워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작은 실수나 잘못을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여유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가지지 못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성당에서도 이런 여유와 용서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작은 실수를 범하면 수군거리고 뒤에서 말하곤 합니다. 이런 행동은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칫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엄청난 죄를 지은 여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실수와 죄를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달라고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 (서울 양해용 신부님 강론에서)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조 문식 베네딕도 형제님이 회복중에 있으나 다시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을 다시 받으며 특별중에 계십니다. 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주님의 도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기도중에 기억해 주십시오.
- 부친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한국에 가신 주 성숙 리따 자매님이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무소식이 회소식임을 알고는 있으나,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내려 주시길 기도중에 꼭 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순덕 까리따스 자매님이 아직도 장기/ 특별중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지 사항

-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및 미사
사순시기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십자가의 길과 미사가 있습니다. 또한 사순시기 동안 금요일 아침 미사는 없습니다.
- 부활 준비 구역별 판공성사
성당에서 미사 전 (오후 7시) 및 후에 있습니다. 은혜의 시기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 사순 특강
일시 : 3월 19일 (금)
작은 형제회 김 재섭 요한 마리 비안네 신부님

“회개하고 하느님께 돌아와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사도 3,19)”



그때에 1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2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3 그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 놓고, 4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5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6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7 그들이 줄곧 물어 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8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9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10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11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1분 명상

“버리고 떠나라, ” -법정-



삶은 소유물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있음이다. 영원한 것이 어디 있는가.
 모두가 한 때일 뿐. 그러나 그 한 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 법정의 《버리고 떠나기》 중에서 -

가진 것은 잠깐 스쳐 지나거나
 언젠가 반드시 소리 없이 떠나갑니다.
 날마다 먹을 것과 건강만 있어도 행입니다.
 짧은 인생인데 그 무엇에 너무 집착 해 살다보면
 그 만큼 괴로움도 크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가진 걸 다 버리고 떠난 사람은 오래도록 향이 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입니다.